◇ 경희인의 겨울나기

산이 가르친 경외심

정 병 호
〈문리대 수학 4〉

2월24일, 처음보는 이름이 적힌 편지가 한 통 왔다. 겉봉만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뜯어보고 나서야 지난 번에 오대산에서 만난 분이란 것을 생각해냈다. 혼히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나중에 보내준다는 말은 거의가 공수표라는데 나는 운이 좋았나보다. 그때 그 아저씨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면서 오대산에서 설악산 입구까지 태워다 주셨다. 그리고 설마했는데 잊지 않고 사진까지 보내준 것이다. 요즘엔 '히치하이크(hitch hike)'도 어려운데 이런 정성을 베풀다니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자연에서 배우는 임기응변과 지혜 야간 및 눈길 산행은 색다른 기쁨

3학년 겨울방학 남들은 공부하고 4학년 준비한다는데 이미 백수로 소문난 나는 아무리 4학년이 코앞에 닥쳐도 책상 앞에 앉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아예 백수의 왕이 되기로 맘먹고 눈온 날만 골라서 산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간 산행이 6번, 산은 8개, 그러다 보니 방학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이젠 졸업과 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4학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버렸다.

혼히들 여행 갔다오면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어온다. 나는 그렇게 물어온다면 할 말이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내가 자연에 속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뿐이다. 더구나 시도때도 없이 마구 떠나다 보니 특별히 생각할 것이 있다든가, 일상 속에서의 굴레를 벗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는 말들이다. 오히려 습관이 되는 듯한 기분이다.

사실 이렇게 산행을 계속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는 명색이 아마추어 천문회라고 날반구에는 어떤 별들이 있는지 사진으로만 보던 소대마젤란 은하와 남십자성, TARANTULANEBULA(독거미 성운), COAL SACK(은하 흑점) 등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성운, 성단들을 보려고 호주로 관측여행에 계획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계획이 괜찮았는데, 막상 비행기값밖에 마련을 못하고 나니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차선으로 택한 것이 국내 여행이다.

겨울에, 그것도 평일에 눈 왔을 때만 골라 혼자서 산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아니면 대체로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도없이 그냥 가는 것은 길을 잘못들 위험이 있다. 더구나 겨우 찾아간 곳이 자연 휴식년제 때문에 폐쇄된 등산로라면 처음부터 몇시간을 잃고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다른 계절에는 야간 산행이 별 부담이 안되지만 겨울엔 밤에 걷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조금 쉰다고 앉았다가 졸면서 그대로 얼어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청도 운문산에 갔을 때의 일이다. 1월3일은 올해 첫눈이 온 날이다. 서설을 밟아야겠다고 부랴부랴 준비해 밤차를 타고 찾아간 운문산은 눈때문에 도로가 막혀 기차로 한 정거장을 돌아가고, 휴식년제 때문에 또 돌아가는 바람에 11시가 넘어서야 산을 오를 수 있었다. 더구나 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는 바람에 아주 엉뚱한 곳을 올라가고 있었다. 거기다 시계는 버리고 눈 때문에 처진 나무사이를 뚫고 가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고 신발은 새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벌을 톡톡히 받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도 난 태양의 위치로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내는 편이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바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잘못하면 초반부터 큰일날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물론 평일인 덕분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맘껏 걸어볼 수도 있었지만(아직도 내가 어느 봉우리를 올라갔는지 모른다). 설악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난 집이 공주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주로 남부지방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설악산은 처음 갔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 '공룡능선은 꼭 가야지'하며 올라갔는데 피붙은 눈보라 때문에 대청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쾌청하고 바람도 잔잔해졌다. 그런데 웬지 공룡능선을 갈 맘이 선뜻 나지 않았다. 초행인데다가 역시 평일이라 발자욱이 눈에 덮여 길 찾기가 어렵지 몰라서였다. 대청 산장 아저씨 역시 말린다. 몇번을 생각한 끝에 뽑답사로 내려왔지만 아쉬운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사실 그 정도 날씨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운문산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조심하는 쪽으로 기울었나보다. 옛날 같으면 겁없이 덤볐을 텐데.

사람은 위험한 일을 겪으면 뭔가 깨닫는게 있나보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처리하는게 달라지고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내 나름대로는 산을 잘 타고 사고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체력 안배도달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두번 위험을 겪을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거기에 혼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같다. 다시 생각해보니 누군가 방학을 보낸 감상을 듣고 싶어한다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듯하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자연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곳이다."

열린 소리

대학주보를 읽고

'법대사건' 보도에 이견

학생회 탄압보상·교수 — 학생회의 이뤄야

지난 23일자 대학주보에 실린 '법대 공문사건 일단락'이라는 기사에 동의할 수 없어 이글을 쓴다.

법대 학생회와 학장님과의 갈등은 처음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가지말라'는 학장님의 통보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후에 더욱 심해져서 '방중에 하는 학생회 사업들은 모두 불법이다'라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합격증 교부시 학생회참여 배제, 학생회비는 안내도 된다라고 강조, 학생회에서 하는 '새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법대 학생회에서는 이것이 예비대학, O·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파악하고 이를 학생회 자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내려,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당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1. 새터, 예비대학만대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시하라. 2. 공문을 비롯한 일련의 학생회 탄압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조치를 취하라. 3. 법대 장단기 발전계획안과 도서관 재배치등에 관한 학생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교수학생징계회의를 실시하라. 4. 22일에 실시하는 법대 O.T에 학생회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1, 2, 3의 요구안이 세겔된다면 학생회측이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1일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학장님 조차도 분노를 터뜨리시는 등의 태도였다. 또한 '법대 장단기 발전계획안'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안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식의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협상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실시될 법대 O.T에 학생회가 참여할 것인가는 문제가 가장 급하게 대두되었고, 신입생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데에 합의, 학생회 측은 기존의 학교측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양보하여 22일 당일에는 학생회가 참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장님이 새터에 대해 언급(사과가 아님)할 것을 전제로 해서 22일 당일에만 국한된 협의일 뿐이고, 본래의 협상은 연기된 것이었다. 또한 대학주보에 분명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락'났다는 것은 잘못 보도된 것이다.

송 홍 남
〈법대 학생회장·행정 3〉

사전 공고 없는 9시 등교 스쿨버스 등 대책 마련없어

지난 3월 2일 개강을 하면서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첫강의 시간을 9시반에서 9시로 변경했다.

어디서 들었는지 미리부터 알고 있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강 첫날부터 지각을 해야했다. 강의 시간이 앞당겨졌는데도 수원의 스쿨버스는 전보다 배차간격이 빨라지지도 않았다. 첫차가 떠난지 20분이 넘어서야 도착한 두번째 차를 탔지만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9시가 넘어서였다.

내가 버스를 타고 있을 때에도 뒤에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두번째 차가 9시를 넘어 학교에 도착할 정도면 그 뒤에 오는 차는 과연 몇시에 도착했겠는가. 그리고 1교시 수업을 들지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만약 학교가 변경된 강의시간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했다면 오늘처럼 대량으로 지각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이 더 이상 제현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박 상 욱
(전자2)

사준위, 졸업준비금 공개해야 졸업식날 앨범 판매 문제화

졸업준비금의 구성에 대해 많은 졸업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졸업준비금은 앨범비(4만6천원), 학생기념품(9천원), 직원기념품(4천원), 적립금(1천원), 졸업장케이스(1천5백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7대 총학생회 산하 졸준위는 26대 사회진출준비위원회(이하 : 사준위)에서 앨범의 자료와 사업내역에 대해 인수 받은 것이 없어 졸업준비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되었는지는 알수가 없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졸업식 당일 앨범 배부와 판매 문제이다. 지난 23일 졸업한 수원캠퍼스 졸업생은 모두 1천7백39명이었으나, 졸업준비금을 납부한 학생은 1천3백3명이었다. 26대 사준위는 이를 기준으로 졸업앨범 1천3백부, 학교기증 백부를 제작하였다.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은 4백36명중 졸업식 당일 앨범구입을 희망한 학생이 많았으나 여분으로 1백50부 밖에 제작하지 않아 많은 졸업생이 앨범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졸업준비금을 납부하고도 앨범을 받지 못한 졸업생이 현재 있다. 이는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앨범을 가져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일 훈
〈졸업준비위원장·유전4〉

일방적 학생 자치공간 통폐합 사회대 증축 적극추진 요망

현재 사회대에서는 학교측이 학생회실과 동아리방 등 학생자치공간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 학생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을 뻔히 예상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학교당국의 처사는 무슨 의도인가? 이는 분명히 일방행정을 펼쳐온 학교당국의 안일한 의식구조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지난해 이미 학교당국은 제열화라는 이름으로 발전에 대한 전망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영, 무역, 회계학과의 통폐합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건만 학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책이 있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는 것이 올해 중원된 교수연구실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 자치공간의 통폐합이었는지 학교당국에 묻고 싶기만하다.

학교 당국은 우리 배움터와 경영계열을 비롯한 각과가 대학평가인정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교육환경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후에 학교 발전과 사회대의 전망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희대 발전계획안', '사회대 발전계획안'을 만들어 착실히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대학평가를 잘 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이 공동논의체계를 마련하여 그 속에서 민주적이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발전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방침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라'는 식의 회생강요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책은 발전 전망속에서 몇년전 부터 약속한 사회대 증축을 빠른 시일내에 학교당국이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윤 성 구
〈사회대 회계 3〉

O.T. 과내 단합의 장 경희인으로 새출발 토대

새로운 친구와 함께간 O.T.가 나에겐 무척이나 신선했다. 비롯 시설이 후락하고 좁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얻은 것이 많았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날밤 신입생 환영회였다. 선배님과 소주 한잔을 나눠 마시며 진정으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나라는 개인으로만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 경희인으로 정외인으로 우리가 될 수 있었다. 아침에 구보하고 고사자내며 막걸리 비를 맞고 색다른 프로그램의 진행들. 재미있는 O.T.였다. 한조가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뚫뚫 뭉쳐 어색했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그 무엇도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나의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곽 동 훈
〈정외1〉

朔風

왜 김대중이 싫으냐?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한다. 이 책은 고전 목록에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에 나의 권장은 곧 현실인식을 제무장하라는 권고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신방과 학생들에게 꽤나 친숙한 강준만교수(전북대 신방과)가 최근에 내놓은 「김대중 죽이기」란 책은 그 제목만큼이나 그동안 무관심 내지는 둔감했던 각종 문제 특히 악마적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언론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을 강요하고 있어서 '쇼킹하다'.

책의 머리말은 '김대중은 복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화두처럼 던지면서 시작된다. 강준만 교수의 그 다음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물음을 놓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쇼'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정말 곤절가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됐다.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김대중의 복귀는 김대중이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건 마치 교도소에 갇힌 사람에게 언제 출소하겠느냐고 묻는거나 마찬가지다. 탈옥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탈옥에 대비해 저격수들까지 대기시켜 놓은 판에 정계에 복귀하겠느냐고? 김대중으로선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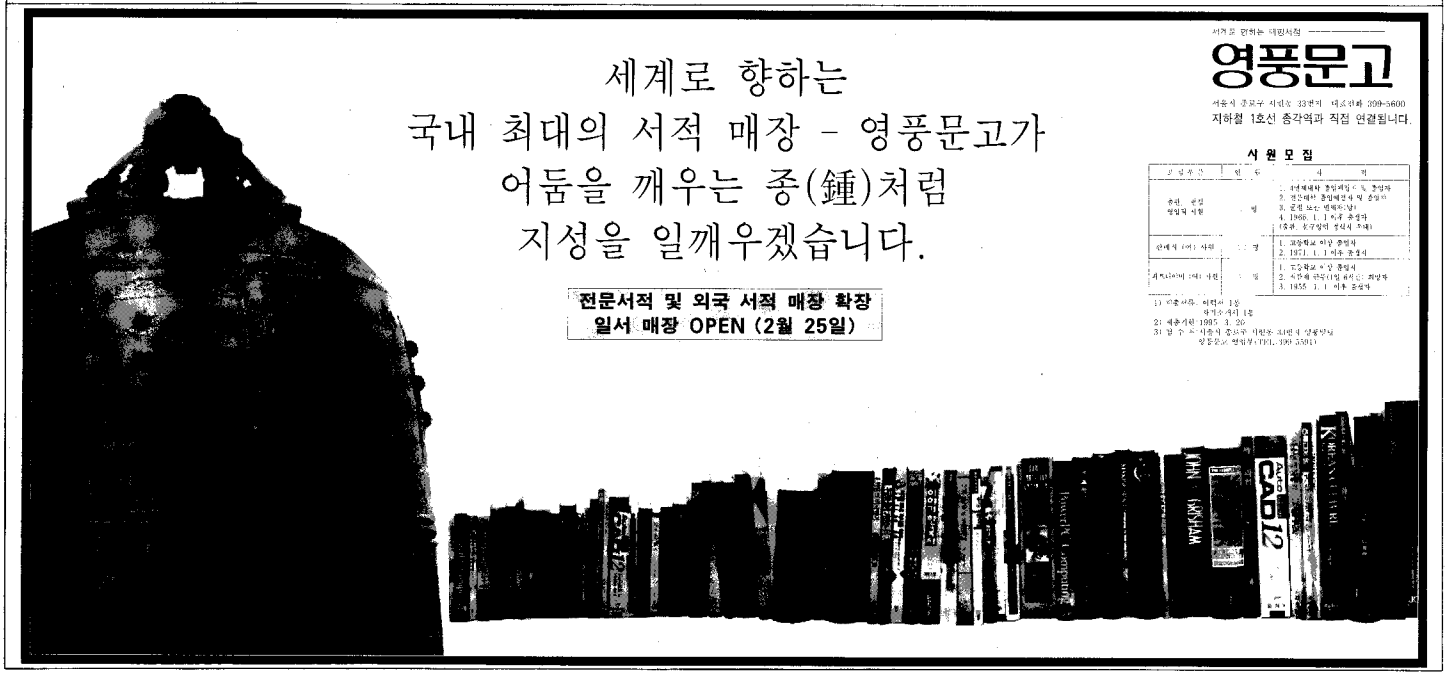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 책이 '김대중 선생님' 예찬론은 아니다. 또 '대통령병 환자' 매도론도 아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책은 말 그대로 김대중이라는 한 사람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는 우리나라 언론과 김대중 주의의 정객들,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김영삼'정부에 대한 비판서이다. 즉 죽은 사람 또 죽이기가 언론에 어떻게 투영되고 정치권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상품' 김대중을 요리하면서 조선일보는 무엇을 얻었는가. '양김'중에서 김대중은 또 '양김구도'가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하여 김대중은 이제 모든 국민들 앞에 '싫다'와 '미워한다'의 간극에 서 있게 되었다. '싫다'와 '미워한다'에는 이유가 없다. 단지 김대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뿐이다. 과연 왜 이런 대답만 하는가.

지역문제만 해도 그렇다. 김대중이 물리난다고 호남지역이 부상할 수 있는가. 강준만 교수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 물증이 94년 12월에 단행된 개각인사분포에도 나타난다.

"국무위원급과 차관급 48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장관 1명, 차관 2명 해서만 3명이다 비록도 낯짝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래놓고선 어린 시절 전남 장성에서 잘시 살았다는 외무장관 공로명과 남편의 고향이 전북 익산이라는 정무2장관 김장숙이 호남출신이란다."

후자는 나의 무비판 정신을 탓할 것이지만, 나는 강준만 교수의 의견에 적극 찬동한다.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지성인이 이런 호쾌한 주장을 펼쳤던가.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가슴을 찢어도 강준만 교수의 펼력을 당해내지 못한다. 차라리 가슴을 찢고 글을 읽을지언정, 이제 왜 김대중이 싫으냐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 또 "그냥"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열〉